

- 책 머리에 -

새천년을 맞는다고 떠들썩한 축제를 벌인 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다. 90년대 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곤고해진 한국인들은, 세기가 바뀌고 밀레니엄이 바뀌는 데에서라도 희망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가 서력 기원을 쓰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여년인데, 2000이라는 수치가 딱히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무렵만 해도,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서양 역법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광무(光武) 4년(1900)에 무슨 세기 말 행사를 열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100여년만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고, 한국인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동양적 전통 속에 숨쉬고 있던 이 나라가 서양의 시간에 지배되고 있고, 사람들은 전통적 생활양식보다는 서양식 생활태도에 더 익숙해 있다.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의 모든 공간도 ‘서구적’=‘근대적’으로 재편되어 버렸다.

한국인이 지내온 20세기는 ‘한국적’인 것을 버리고, 그 빈 자리를 서구적인 것들로 채워 온 시기였다.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었고, 산업혁명 이후 비로소 ‘세계’가 열렸던 이상, 후진 각국이 서구화를 지상과제로 삼은 것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구화에 뒤쳐지는 것은 곧 세계 역사의 전진 과정에서 낙오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적으로 서구화=근대화의 과제를 달성했다. 한국인이 겪은 근대화 과정은 이 지구상의 어느 민족,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구적인 것으로 채우는 속도가 빨랐던 만큼, 내다 버린 전통적 가치도 많았다. 한국인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발밑을 다질 수 있을 만한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어느 사이엔가, ‘바쁘다 바빠’와 ‘빨리 빨리’, 그리고 ‘대충 대충’이 한 국의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어 버렸다.

혹독했던 1997년 겨울에 앞서, 한국 사회가 이루어 놓은 성과가 무척이나 혀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입증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보면서, 한국 근대화의 신화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것일런지도 모른다는 회의를 품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이들 대형 건조물의 붕괴는 1997년 겨울의 엄청난 경제적 붕괴를 예언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의 배후에 천박한 성장 제일주의가 자리잡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어쩌면 수치뿐인 2000년일런지도 모르지만, 100년전과는 판이한 역사적 시간대에 사는 이상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진정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달리면서 놓쳐 버리고 내던져 버렸던 것들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서울학연구소는 개소(開所) 아래 바로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진 것들을 되찾아 보려는 일에 열중해 왔다. 밀레니엄의 전환을 평계삼아, 변화가 특히 격신했던 20세기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지만, 거기에는 그동안 서울학연구소가 이룬 성과를 다시 한 번 다지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은 산적해 있지만, 아직도 서울학은 걸음마 단계에 있을 뿐이다. 20세기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가당치 않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작은 대상에 대해서나마 구체적인 연구를 축적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998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서울에서 가장 역사지층이 두터운 지역에 대해 실증적이고 치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와 같은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이 책은 그 첫 해의 연구 성과를 모은 것이다. 지금은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간선도로의 하나가 되어 있지만, 청계천로는 본래 개천이었고, 그로 인해 수백년간 도심을 양분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었다. 그 개천이 도로가 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개천으로 인해 분단되었던 도심은 복개로 인해 통합되었는지, 개천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공간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이 이 책에 수록된 연구성과들의 관심사항들이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관심은 공간의 변화 자체에 머물지는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성을 찾아내고, 그를 풀어내는 다양한 방식, 그 방식간의 조화

가능성이 이 책의 주요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서울학’ 정립이라는 일견 거창한 과제를 내걸고 출범한 서울학연구소는, 지난 8년여간에 이루어 온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을 이 책을 통해 타진해 보고자 했다. 아마도 도서관 사서들에게 이 책은 분류하기 까다로운 책이 될 것이다. 역사학, 사회학, 행정학, 조경학, 건축학, 도시공학이 각각의 관점과 문제의식으로 서로 다른 구간을 들여다 보았다. 이러한 시도가 청계천(로)의 ‘문제성’을 제대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이같은 연구의 축적이 궁극적으로는 종합학문으로서의 ‘서울학’ 정립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실용성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시대에, 실용성과는 무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만이 지닌 강점일 것이다. 그러나 실용성의一面을 들추고,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연구자들의 몫이다.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또 어찌할 수 없는 청계천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여러 관계자들, 특히 1998년 당시 서울학연구소장으로서 이 연구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던 강홍빈 부시장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를 떠맡아 충실히 연구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1. 5.

서울학연구소장 최기수